

# 사목 2021 지침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는 교구 공동체

너희가  
나의 손과 발이  
되어다오!



전주교 서울대교구

# 2021년 사목교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

-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는 교구 공동체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구는 신앙의 기초를 다지며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두 해 동안 ‘복음의 기쁨을 선포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가정과 본당 공동체를 중심으로 힘써 온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1년에는 그동안 맺은 열매들을 바탕으로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는 교구 공동체’를 가꾸는 데에 교구의 모든 신자들과 본당 및 기관이 힘을 모아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sup>1)</sup>고 말씀하십니다. 세례받은 우리 모두는 복음 선포의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선교사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체험한 복음의 기쁨을 우리의 가정과 본당 공동체를 넘어 세상 곳곳에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지

---

1) 이 말씀은 조선대목구 초대 대목구장 브뤼기에르 주교의 사목표어이기도 합니다.

구촌 곳곳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세상 살이도 커다란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는 복음이 가져다주는 큰 기쁨과 행복을 새로운 방식으로 온 세상에 증거해야 합니다. 올 한해 가정과 본당 그리고 세상 안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도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선교적 교구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합시다. 이에 교구가 지향해야 할 참다운 선교적 자세를 믿음, 희망, 사랑의 향주덕에 비추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교구는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구는 하느님께 믿음을 두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신앙을 선물로 받은 믿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개인적 차원을 뛰어넘어 공동체를 통하여, 공동체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성장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스스로 하느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교회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또한 미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sup>2)</sup>라고 고백하며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교구 공동체를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더욱 변화시켜 참된 선교 사명을 수행하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2) 교구는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는 ‘희망의 공동체’입니다.

교구는 하느님께 희망을 두는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악의 세력은 점점 하느님의 뜻보다는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가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안의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모든 이들에게 하느님만이 우리의 희망임을 외치고 싶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집트에서의 노예살이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셨고, 엘리야로부터 세례자 요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당신이 언제나 함께하고 계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자 하느님께서는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에게 부활에 이르는 참된 생명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

2) 교황 베네딕토 16세,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1항.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하느님’께 희망을 두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진정한 선교사는 자신의 선교 사명 가운데 예수님께서 언제나 함께 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sup>3)</sup> 하느님께서서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탈출 3,12)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느님께 희망을 둘 때 교구 공동체는 참된 ‘희망의 공동체’가 되어 지치지 않는 선교 열정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3) 교구는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구는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마음 한 몸이 되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 첫 신자 공동체의 생활은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었기에 날마다 구원받을 이들이 늘어났습니다(사도 2,42-47 참조). 우리도 하느님께로부터 전해 받은 사랑을 공동체와 더불어 충실히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안드레아가 형인 베드로에게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요한 1,41)라며 기쁨에 차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가장 먼저 자신의 가까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온 삶으로 전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갈라 5,6)을 통하여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1요한 4,16)라고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자기 자신의 이해와 관심에만 갇혀 있을 때, 더 이상 다른 이들을 위한 자리가 없어 가난한 이들이 들어오지 못”<sup>4)</sup>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교구 안에서, 특히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복음의 기쁨을 전해야겠습니다. 교구 안에서뿐 아니라 우리나라, 더 나아가 세상 모든 곳에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내 선교에 대한 관심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수많은 이들과 그들이 함께하는 현지의 어려운 이들에게도 관심과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통해 그리스도를 삶의 자리와 처지에로 모셔가는 교구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복음의 기쁨을 증거할 것입니다.

사제 여러분, 교구장 주교인 저와 일치하는 가운데 “선교를 핵심으로 하는 사목”<sup>5)</sup>에

3) 교황 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 266항 참조.

4) 교황 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 2항.

5) 교황 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 35항.

더욱 힘을 기울여 주십시오. 200년 전 이 땅에 탄생하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두 사제의 하느님과 교회에 대한 사랑, 복음화를 위한 사목적 열정을 본받는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이 동반하고 있는 본당과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안에서 착한 목자이신 주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과 눈길, 그리고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실까? 주님의 손길은 어떻게 어루만지실까?’를 묻고 실천합니다. 주님을 본받아 ‘찾아가는 사목’, ‘함께하는 사목’을 실현하는 선교사가 됩시다!

남녀 봉헌 생활자 여러분, 여러분의 고유한 신분을 통하여 선교에 더욱 충실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복음화를 지향하고 실현하려는 교구 공동체에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기도생활과 더불어 하느님과 공동체로부터 받은 사랑을 고유한 활동을 통하여 증거하는 삶을 살아주십시오. 각자의 소임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일하는 사랑의 선교사가 됩시다!

신자 여러분, 가정을 비롯한 학교, 직장, 각종 모임, 본당과 지역, 그리고 세상 안에서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 주십시오. 여러분이 생활하는 모든 곳은 평신도 사도직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복음화의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인 및 공동체 차원에서 신앙 성숙을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신앙생활과 세상살이의 어려움이 크겠지만 ‘신앙의 끈’을 간직하고, 이어 주고, 전하는 선교사가 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도 바오로는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1코린 9,16)라고 복음 선포의 사명을 일깨워주십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마태 5,14,16)고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느님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두는 새로운 복음화의 여정을 살아갑시다. 이러한 ‘복음화되어 복음화하는 교구 공동체’로서의 노력은 2031년에 맞이하게 될 ‘교구 설정 200주년’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증언한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 땅에 복음의 빛을 전하신 한국의 순교자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2020년 대림절에

† 열 수 경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 2021년 사목교서에 따른 지침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

## 사목국

자신의 삶의 자리, 삶의 처지에서 ‘신앙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갑시다.

1. “복음화되어 복음화하는”(「평신도 그리스도인」, 36항)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합니다.
  - (1) 교황 프란치스코의 복음화 권고 문헌(「복음의 기쁨」, 「자비의 얼굴」, 「찬미받으소서」, 「사랑의 기쁨」,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을 공부합니다.
  - (2)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두 분 사제와 관련된 글을 읽거나 장소를 방문하여 신앙의 열정을 북돋우도록 합니다.
  - (3) ‘새로운 선교 열정을 위한 기도’를 지속적으로 바칩니다.
2. ‘신앙의 끈’을 간직하고, 이어주고, 전하는 선교사가 됩니다.
  - (1) 자신의 삶의 자리, 삶의 처지에서 복음의 기쁨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 (2) 자신의 자녀들 또는 손자녀들에게 신앙을 이어주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 (3) 예비 신자들과 새 영세자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표현합니다.
3. 일상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처럼 자비로운 삶’을 실천하는 선교사가 됩니다
  - (1) 주님의 마음과 눈길이 머물고, 발걸음이 향하고, 손길이 내밀어질 사람과 장소를 찾아봅니다.
  - (2) 주님을 본받아 그 사람과 그 장소를 찾아가고, 함께합니다.

4. 국내 선교뿐 아니라, 해외 선교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도록 합시다.

(1) 해외에서 선교활동 중인 평신도, 수도자, 사제를 기억합시다.

(2) 해외 선교활동을 위한 영적·물적 협력자가 됩시다.

### <행정지원팀>

“단체들은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 완수에 봉사하여야 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19항)

따라서 평신도 (사립)단체들과 구성원들은,

1. 각각의 조직의 성장과 발전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선포와 사랑의 실천이라는 보편적 사명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 복음 선포의 소명을 더욱 잘 수행하기 위해 단체 내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깊게 하는 피정, 교육 및 기도운동을 통한 영적인 성장에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19 상황에서 서로 간에 인격적 만남의 제한이 있지만 스스로 신앙의 끈을 간직하고 이웃과 후손들에게는 그 신앙을 전달해주는 역할에도 함께 참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4.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와 신앙인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특별히 소외되고 어려움에 놓여있는 이들과 함께하고 도움을 주는 일에도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팀>

### ■ 일반

1.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는 교구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이들의 여러 양성 교육을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목위원과 구역장, 반장 연수 및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였습니다. 특별히, 비대면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현대의 흐름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제공될 강의와 자료를 널리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사목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구역반장학교 강의에 다양한 주제를 준비하였습니다. ‘사회 안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교구 공동체’를 위해 특히 환경 및 생태와 나눔의 주제로 강의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가정과 본당에서 복음화를 위해 애쓰는 그리스도 신자들이 이제 사회 안에서, 나눔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어 풍성한 교구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십시오.
3. 2020년 구역반장 월례연수에서는 구약 성경을 주제로 한 강의를 이루어졌고, 2021년에는 신약 성경 안에서의 사건과 체험을 중심으로 강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많은 봉사자가 신약 성경의 사건을 공부하고 묵상하며,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는 교구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본당의 수도자들과 협력하여 ‘말씀을 증거하는 교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수도자들이 교구의 연수와 모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 선교전례

1. 각 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본당 중심의 구체적인 체계적인 선교 운동을 진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비 신자 교육과 교리 봉사자 양성을 위해 교구에서 실시 중인 교리 교사 및 봉사자 양성 교육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후 새 신자

들이 신앙 공동체와 하나 될 수 있도록 후속 교리 프로그램 등 건진성사까지 체계적인 입문성사가 이루어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 코로나19 이후 교회의 선교 사명을 재인식하고 선교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목 활동에 애써 주십시오. 특히 주님을 본받아 ‘찾아가는 사목’, ‘함께하는 사목’을 통하여 선교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례 안에서 새로운 신앙의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신자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본당 전례 봉사자들을 위한 교구의 ‘전례학교’, ‘성주간 전례 교육’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가정

1.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는 교구 공동체를 위해서 모든 본당과 가정의 내적 복음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생명과 신앙의 기초인 가정공동체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가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2. 가정 내에서 기도와 나눔을 위한 자리와 시간을 마련하도록 독려해 주십시오. 공식적으로 마련된 ‘가정을 위한 기도’, ‘부모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부부의 기도’ 등을 안내하여 개인적으로나 가족이 함께 모여 봉헌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매일 또는 주일의 복음 말씀이나 정해진 성경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눌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십시오.
3.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면 교육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이고 필수적인 혼인교리는 축소 진행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 교육 등을 활용하여 혼인 면담과 성사 거행에 도움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교리 이수를 하지 못하고 혼인 준비를 하게 되는 예비 부부들에 대한 사목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4. 본당 파견 프로그램과 주말 신청 프로그램의 경우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안정된 상황에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모든 신자 가정공동체가 일상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돕고자 여러 가지 방식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목국에서 마련한 여러 사목 자료를 적극 활용해 주시고, 개별 가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 <노인사목팀>

“저는 여러분들에게 노인들이 교회의 오늘과 내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 또한 젊은이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꿈을 꾸는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노인과 젊은이가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2020년 1월 교황청 평신도와 가정과 생명에 관한 부서가 주관한 노인사목 관련 국제회의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

1. 노인 신자들이 세상 안에서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신앙교육을 진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받는 노인’에서 ‘주는 시니어’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노인 신자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노인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영성나눔교재)」, 「창세기·탈출기 성경문제집」을 보급하였고 「성경쓰기 + 컬러링북」, 「4복음서 성경문제집」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습지 형태의 월 교재를 제작할 예정이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당에 오지 못하는 노인 신자들에게도 교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영 시니어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교황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세대의 부모들 다수는 조부모들이 손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교적인 양성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조부모들이 손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 어린 손자녀들을 둔 조부모들인 영 시니어들이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중심으로 신앙의 전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보급할 예정이오니 잘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장사목팀>

직장생활을 하는 교우들이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의 방향을 깨닫고 더욱 굳게 다져진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음의 실천 사항을 권고하고 노력합니다.

1. 삶의 터전인 직장에서의 생활이 교회의 가르침과 분리되지 않고 사랑의 실천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노력합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더욱 잘 알고 가까이 하기 위해서 공동체 모임과 교육 행사 등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2. 기도가 필요한 교우를 위해서 직장교우회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3. 직장을 다니는 교우들이 미사를 중심으로 공동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미사 참석과 미사에 관한 교육을 충실히 실시하기를 바랍니다.

4. 교우회 미사 때 각 교우들로 하여금 고해성사 및 미사 준비를 성실히 하기를 바랍니다.
5. 교우회 모임 시 성경 읽기와 나눔 및 ‘가톨릭직장인’ 월보를 통한 나눔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직장인 교우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6. 직장사목팀에서 주관하는 피정과 성지순례 및 신앙대회와 같은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직장생활의 의미 있는 쉼터를 찾고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7. 격년으로 진행되는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위한 교리에 많은 예비 신자들과 교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기를 부탁드립니다.
8. 코로나19 사태로 직접 대면을 통해 교우회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개인기도 생활과 교구 On-Line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개인 영성 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9.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SNS나 기타 연락 매체를 통해 교구 직장사목팀, 그리고 각 교우회 회원들 간의 일치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성서못자리>

1.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기 위한 근간(根幹)이 되는 '성경'을 본당 공동체의 교우들이 읽고 묵상하고 나눌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교구 공인 성서사도직 프로그램인 '성서못자리'를 비롯한 '가톨릭청년성서모임', '가톨릭성서모임', '성서백주간', '여정성서모임', '베네딕도성서학교', '바오로성서모임',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등을 교우들에게 소개하여, 유사종교에 현혹되

지 않고 올바른 성경 공부를 통해 참된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온라인 성경 강좌 수강에도 독려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본당 내에 성서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교우들이 있다면, 그들이 단순히 지식 추구에 머물지 않고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야고1,22)"으로서 복음의 기쁨을 선포하는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 <가톨릭청년성서모임>

1. 청년 신자들이 속해 있는 본당, 대학, 직장 안에서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이 신앙인임을 드러낼 수 있는 외적 표지를 공동체 안에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 그룹 공부와 연수를 통해 하느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눔으로써 하느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깨닫고 희망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봉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3. 본당이나 대학에서 주일 독서, 복음 묵상나눔과 기도로 모임을 시작하고, 대면 모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SNS를 통해서 그날의 복음과 독서말씀 묵상을 나누며 말씀 안에 담겨진 하느님의 사랑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4. 가톨릭 청년 신자들이 73권의 신구약성경의 말씀을 통독하도록 독려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안에서 말씀 묵상을 나누며, 하느님과 하느님 말씀 안에서 지닌 ‘희망에 관하여 언제나 대답할 수 있는 준비’(1베드 3,15 참조)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함께 모인 젊은이들의 교회를 이루는 가톨릭청년성서모임”은

평신도 사도직을 실천합니다.

소그룹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젊은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합니다.

본당, 대학, 직장에서 새로운 복음화를 실현합니다.

###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영성심리상담교육원은 서울가톨릭상담심리학회를 통하여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복음적인 상담봉사자와 상담심리전문가를 양성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응답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교육원은 수강생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과 상담가로서의 전문성을 계발하기 위하여 가톨릭 관련 영역 및 상담심리 관련 영역의 강의를 개설하고, 상담수련을 통해 현장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국

교구장님께서 2021년 사목교서에서 강조하신대로 모든 신앙인들은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며 선교사로서 살아가야 할 사도들입니다. “신자 여러분, 가정을 비롯한 학교, 직장, 각종 모임, 본당과 지역, 그리고 세상 안에서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 주십시오. 여러분이 생활하는 모든 곳은 평신도 사도직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복음화의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인 및 공동체 차원에서 신앙 성숙을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신앙생활과 세상살이의 어려움이 크겠지만 ‘신앙의 끈’을 간직하고, 이어주고, 전하는 선교사가 됩시다!”(2021년 교구 사목교서 중에서)



이에 청소년국에서는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북돋아 주고 격려해주고 길을 보여주는 활동들을 2021년에 수행할 활동의 주요 초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어른’들의 마음속에는 사실, 여전히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심지어 청년들을 선교와 사목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청소년 분야의 사목 활동이 주로 ‘교육’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로마 10,14) 라고 하신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하느님의 말씀은 사도들로부터 전해져 오는 흐름 속에 있고 그래서 가르친다는 것이 매우 핵심적이고 중요한 행위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르침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이와 듣는 이가 고정된 모습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은 이가 다시 선포하는 이가 될 때 그 사명이 완수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어떤 기간이나 자격이라는 조건을 충족할 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닫는 순간 이어져 가는 흐름이며 깨우침은 스스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 완성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1980년부터 야심차게 시작한 학교 형태의 본당 청소년 사목에 대해서도 이제 새로운 형식과 방법론을 모색할 때가 되었음을 느낍니다. 세례받는 이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한꺼번에 많은 이들이 모여와 신앙의 가르침을 갈구하던 그 때에 많은 어린이, 청소년들을 모아 놓고 강의 수업의 형태로 기초적인 교리 지식과 성경 이해를 가르치는 일들은 매우 필요했고 의미 있었으며 그로 인해 교회 공동체는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회의 변화, 물질문명의 발달에 따라 인구 통계학적인 지표가 달라지고 가치관이나 생각의 방식들이 달라졌으며 관계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삶의 척도들이 혁명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1년이 다 되어가는 팬데믹 상황 또한 우리가 유지해온 훌륭한 방식들에 대해서 진지한 숙고와 성찰을 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진리의 핵심은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어떻게 선포하고 또 어떻게 선포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새로운 부대를 준비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느낍니다. 2021년 한 해는 이에 대한 많은 논의와 시도들이 이루어지길 희망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대상으로만 남아 있거나  
먼 훗날의 선포자로 여겨지지 않고, 교구장님의 사목지침에 따라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 선포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1. (유아부)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시대를 겪고 있는 영유아들의 신앙교육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전부터 부모(조부모)로부터의 교육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부모(조부모)로부터  
의 교육입니다. 다만 성당에서의 직접 경험에 의한 교육이 어려운 만큼 시청각  
자료를 통해 전례의 경험이 끊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2. (장애인신앙교육부)

본당의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  
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는 교구 공동체’라는 사목교서의  
방향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랑과 희망의 공  
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성사에 자주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안에서 하느님 사랑과 은총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십  
시오.

### 3. (초등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비대면(非對面) 상황이 이어지면서 초등부 어린이들을  
본당 공동체와 주일학교에서 만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본당의 주일학교 어린이  
들과 그 가정이 신앙의 끈을 놓거나 냉담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청소  
년국 주일학교 부서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을 적극 활용해 주시고, 가정에서의 신  
앙교육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교리 자료를 안내하고 배포하여 꾸준히 연락을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초등부 어린이들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첫영성체 대상자인 어린이들의 교육에도 관  
심을 가져주시고, 적절한 교리교육 방법을 강구하여 첫영성체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또한, 교리 교사를 비롯한 봉사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양성  
에도 힘써주십시오.

#### 4. (가톨릭스카우트)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활동함으로써 가정의 성화되고, 이를 통해 본당 공동체가 활동적으로 성화될 수 있도록 본당 내 활동프로그램인 가톨릭스카우트를 지지해 주십시오.

#### 5. (중고등부)

코로나19 안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청소년들이 신앙적인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우리 신앙의 중심은 미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시오. 더불어서 청소년동반자(교사) 봉사자들은 청소년들의 봉사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의 청소년들의 위치와 소중함을 알아 그들에게 동반자로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청소년담당 사제는 교구에서 제공된 다양한 교육과 콘텐츠에 관심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고, 청소년들과 좀 더 직접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 6. (학교사목부)

학교사목부는 학생들의 주 생활권인 학교를 중심으로 본당 사목자들이 청소년들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지원·연계하고 있습니다. 본당 구역에 속해있는 학교에도 사목적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학교 내에서도 청소년들이 복음을 접하고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 7. (청년부)

하느님께서 청년들에게 심어놓은 꿈에 응답하도록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실천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 주시고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느끼게 해주시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기쁨을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에페 4,1ㄴ)

#### 8. (대학교사목부)

본당 사목 관할 내 대학교 가톨릭 공동체는 복음화의 과정과 열매들을 각 학교의

현장에서 증거하는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후속 교황 권고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를 통해 청년 사목은 ‘다가감’과 ‘성장’이라는 두 가지 주요 행동 노선을 따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본당 사목 관할 내 대학교 가톨릭 공동체의 구성원인 청년 대학생들이 스스로 캠퍼스 복음화의 주역이 되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대학교사목부는 교구 내 관련 본당과 연계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대학생들의 신앙을 성장시킴으로써 젊은이만의 역동성을 드러내는 ‘다가감’과 ‘성장’의 장을 구축하도록 본당과 사목부서는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학교사목부는 본당 사목자들과 대학교 내 사목 대상자들이 신앙적 유대를 맺고 친교를 형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자 합니다. 본당과 연계하는 대학교 복음화 활동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문화홍보국

### <주보편집팀>

1. 전례자료, 복음 묵상과 신앙 나눔, 교구의 여러 소식 등이 담겨있는 서울주보는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며 신자들의 신앙생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신자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는 서울주보는 2021년 사목교서에 따라 믿음과 희망, 사랑으로 복음의 기쁨을 전하며, 인쇄물 외에도 모바일을 통해 ‘찾아가는 사목, 함께하는 사목’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참여형 코너를 통해 신자들의 신앙체험을 나누고 본당 공동체와 소통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신앙을 전하는 일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2.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이웃을 돕기 위한 모금 활동 <사랑의 손길>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화팀>

3. 신자들의 성숙한 신앙생활과 기쁘게 사는 삶의 증거로 이웃에게 복음의 기쁨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서울대교구 문화학교’를 운영합니다. 깊이 있는 신앙 강좌와 인문학 강좌는 물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미디어와 기술들을 활용한 교육과 피정,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4. 가톨릭 문화를 즐겁고 유익하게 전하며,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성경, 예술, 인문학 등 새롭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인 ‘가톨릭 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에 관한 관심과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선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5. 성탄의 의미를 알리고 기쁨을 나누는 성탄 축제 ‘명동, 겨울을 밝히다’를 서울시와 협력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이후 뉴노멀 시대임을 고려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축제를 마련하겠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가톨릭 교회 고유의 문화와 풍습을 나누며 복음의 기쁨을 선포하는 또 하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6.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문화의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인·언론인들의 모임과 활동을 지원하며, 영적 성장을 위한 도움을 지속해서 제공하고 자 합니다.

## <굿뉴스팀>

7. 가톨릭 인터넷 굿뉴스는 모바일 시대를 맞아 휴대전화를 통해 신앙에 유용한 정보를 얻고 소통함으로써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에 도움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라는 말씀에 따라 코로나19로 힘든 이때 사이버 공간에서의 주님 말씀을 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 해외선교봉사국

### 1. 해외선교봉사국의 목적(존재 이유)

해외선교봉사국은 받는 교회에서 나누는 교회의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교구는 해외선교봉사국을 설치하여 나눔이 필요한 교회에 사제들을 파견하고(Fidei Donum) 신앙을 나눔으로써 보편교회의 선교 사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제3세계(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중남미 대륙)는 사제의 부족으로 심지어 한 신부님이 공소 50개를 담당하는 지역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1세계라고 칭할 수 있는 유럽, 북미주, 호주, 일본 등의 대륙도 사제가 부족하여 본당이 공소화되는 지역들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많은 지역교회에서 한국교회에 사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서울대교구 사제들과 신자들이 모범적으로 살아 성소가 끊이지 않고 사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큰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교지역에서 사제의 존재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드러내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사제가 부족한 곳에서 사제의 존재 자체가 가난한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됨을 경험합니다. 이에 서울대교구 해외선교봉사국은 가능한 한 많은 사제들이 선교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서울대교구 사제들이 온 세상 곳곳에 가서 다양한 교회와 문화를 접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뜻과 나라를 보다 선명하게 보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만나는 하느님의 현존은 너무나 강렬하여 하느님 사랑에 온전히 승복하게 합니다. 이는 커다란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선교경험을 통해 서울대교구는 더욱 발전할 것이고 사제와 신자들 모두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드릴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2. 해외선교는 사제들의 몫만은 아닙니다.

평신도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선교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이에 해외선교봉사국은 가능한 한 빨리 평신도들이 해외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선교에 관심이 있는 평신도들을 발굴, 육성할 수 있는 교육과 제도를 위해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3. 서울대교구는 한국교회의 영적인 중심이며 물질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서울대교구민들은 먼저 해외선교가 주님 뜻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과 가정, 본당에서 선교를 지향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효과적인 외방선교에 도움을 주고자 물질적인 지원도 아낌이 없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백성을 측은히 여기시어 빵의 기적을 이루어 장정만도 오천 명을 먹이신 것처럼(마태 14,21) 외방선교를 통해 가난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봉사할 나눔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4. 2021년은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는 교구 공동체”로서 살아가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코로나 19라는 전염병도, 그 어떠한 세속의 유혹도 하느님의 사랑의 울려 퍼짐을 막을 수 없습니다. 교구장님의 선교 지향에 따라 해외선교봉사국은 “복음의 기쁨”을 증언하고 실천하도록 준비하고, 해외선교 중인 사제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5. 해외선교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제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입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오늘날 해외선교가 갖게 되는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리고 홍보하여 사제들뿐 아니라 신학생들에게도 좋은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6. 현재 서울대교구 사제들이 선교 중인 지역과 명단(2020년 10월 기준)

| 번호 | 파견국가     | 지역      | 파견사제 |
|----|----------|---------|------|
| 1  | 과테말라     | 산티아고    | 김현진  |
| 2  |          | 산티아고    | 유동철  |
| 3  |          | 산티아고    | 한상현  |
| 4  | 대만       | 타이중     | 임창재  |
| 5  |          | 신주      | 김재원  |
| 6  | 독일       | 뮌헨-프라이징 | 신정훈  |
| 7  | 멕시코      | 몬테레이    | 이승민  |
| 8  |          | 후아레즈    | 최우주  |
| 9  | 미국(알래스카) | 주노      | 민경일  |
| 10 | 스페인      | 마드리드    | 고가람  |
| 11 | 일본       | 도쿄      | 이종안  |
| 12 |          | 오사카     | 김태근  |
| 13 |          | 요코하마    | 김윤복  |
| 14 |          | 후쿠오카    | 신광수  |
| 15 |          | 삿포로     | 박민우  |
| 16 |          | 오사카     | 안민우  |
| 17 |          | 후쿠오카    | 김성천  |
| 18 | 칠레       | 산티아고    | 정성훈  |
| 19 |          | 이키케     | 이현규  |
| 20 | 콜롬비아     | 보고타     | 양 호  |
| 21 |          | 보고타     | 박형문  |
| 22 | 페루       | 리마      | 양용석  |

## 사회사목국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광범위한 사회적 병폐도 드러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병폐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버려야 할 물건으로 생각”하는 인간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지적하십니다. 교황님은 코로나19로 우리 모두가 얼마나 취약하고 서로 연결돼 있는지를 드러내 보였다고 말씀하시면서, “서로를 보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치유할 수 없다”고 호소하십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세상 치유”: 신앙과 인간의 존엄성, 바티칸뉴스, 2020.8.12)

“우리 모두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편안한 곳에서 나와 복음의 빛이 필요한 ‘변방’ 곳 곳까지 가기 위해 ‘길을 나서라’라는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 20항)

### <정의평화위원회>

1. 예수님의 형제애를 본받아 우리도 세상에서 이웃사랑과 평화 실현에 참여할 방법을 찾아 실천해 봅시다.
  - 불평등한 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에 지지합니다.
  -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연대와 나눔을 실천합니다.

### <경찰사목위원회>

1.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국가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 중요 치안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들은 언제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대면하고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잦은 출동과 불규칙한 근무형태에 따른 스트레스로 오히려 자신들을 돌볼 여유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경찰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들의 마음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나아가 복음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사목, 함께하는 사목에 힘써주십시오. 경찰들을 조금 더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해 주는 참된 이웃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2.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유지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가톨릭 경찰공동체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치지 않는 믿음과 희망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으로써 영적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공동체의 복음화를 통해 참된 경찰의 길을 제시할 수 있으며, 참된 경찰은 사회 복음화를 앞당깁니다.
3. 경찰과 유치인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고 복음의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활동하는 선교사의 양성과 선교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힘써주시고, 그들이 하느님 안에서 자신의 역할에 소명의식을 갖고 참된 복음의 기쁨을 증거 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사목위원회>

노동은 인간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입니다. 또한, 노동을 통해 인간은 능력을 개발하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코로나19가 촉발한 세계적 재난 속에서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고 일상생활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나보다 어려운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연대하여 함께 어려움을 극복합시다.

### <노인복지위원회>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전파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비대면 형태의 여러 방안이 일상생활 곳곳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들의 관심에서 더욱 멀어져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큰 사회적 약자 중의 하나가 바로 “노인”입니다.

독거노인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더 큰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들이 바로 노인들입니다. 그렇기에 본당 공동체 차원의 관심이 노인들에게는 더욱 필요합니다. 노인들, 특별히 독거노인들에 대한 본당 공동체에서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는 그들에게, 하느님께 대한 그리스도 공동체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단중독사목위원회>

모든 중독자와 가족공동체가 하느님의 복음 안에서 지속적으로 탈중독을 실천하고 유지함으로써 건강하게 회복하여 다른 중독자와 그 가족들이 모여있는 본당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선포함으로써 ‘복음의 기쁨을 선포하는 본당 공동체’로 거듭 뉘어지도록 노력합니다.

### <한국중독연구재단(카프성모병원)>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게임 등 각종 중독으로부터 힘들어하는 환우들과 가족들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본당의 성직자, 수도자 그리고 사목위원들의 치료 권유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서울대교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카프성모병원(고양시 소재)은 알코올 전문병원으로서 체계적인 치료시스템을 통한 전인적 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독은 자신의 의지로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전문치료와 관리를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중독을 극복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시고, 그 희망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자가 되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병원사목위원회>

작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은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 지냈습니다. 특히나 병원 현장에서는 위로가 필요한 환자와 그 가족들의 영적돌봄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질병의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고, 어떻게 해서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대면형식의 영적돌봄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의 희망을 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에게도 복음적 삶을 통해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고, 슬픔 속에서도 위로를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빈민사목위원회>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갈라 5.6)

가정은 교회의 세포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움터 나오는 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과 성모님 그리고 요셉 성인께서 이루신 성가정을 지향하며 사랑을 실천하고자 노력합니다. 이 사랑은 가정 안에만 머물지 않으며 세상의 모든 이를 향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가정의 따스함에서 외로이 떨어져 있는 소외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녀들의 무관심 속에 임대아파트에서 홀로 살아가시는 독거 어르신들이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쪽방촌에서 고시촌에서 그리고 지하실이나 옥탑방에서 외로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하루 종일 일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축축하고 냄새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방치되다시피 홀로 남겨진 어린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우리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위를 둘러보면 바로 옆 우리 이웃의 처지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입니다.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신 예수님처럼, 오늘도 어려운 환경에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이들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1.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을 개인적 차원을 뛰어넘어 공동체를 통하여, 공동체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성장시켜야 합니다”(2021년 사목교서) 나를 위해서 혹은 우리 가족만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교정시설에 갇혀 있는 수용자와 수용자 가족들, 출소자, 범죄피해자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중에 그들을 기억하는 것은, 그들을 한 인간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할 것이고, 우리 사회를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2. 코로나19의 여파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와중에 특별히, 가족이 교정시설에 갇혀 있다는 정신적인 아픔과 함께 생계문제로 버거워하는 수용자 가족들, 그리고 사회로 나왔지만, 막상 생계를 잇기 어려운 출소자들에게는 지금의 현실은 다른 여느 때와는 달리 더욱 넘기 어려운 큰 벽입니다.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는 희망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는 따뜻한 시선으로 그들을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시며, 손을 잡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3.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온 삶으로 전해야 합니다”(2021년 사목교서)의 말씀처럼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교정시설 현장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교정봉사자 및 후원자들을 격려하시고, 또한 이러한 나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갈라 5,6)을 통하여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1요한 4,16)라고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복음의 기쁨을 전해야겠습니다.(2021년 사목교서 중에서)

교구(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와 본당이 함께, 지역사회 내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노숙인, 중장년 독거남성, 미혼모 가정 등)과 특히 제도권에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웃사랑 실천으로 영적(돌봄과 관심) 및 물질(현금과 물품) 지원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교구(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가톨릭사회복지 사랑실천 교육’을 본당에서 실시하여, 본당이 관할 지역 내에서 가난한 이를 찾고, 그들에 대한 인식개선을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 사랑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2. 교구(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본당의 성직자와 수도자, 사목협의회, 남·구역분과, 선교분과(레지오마리아 등), 사회사목분과등이 함께 연계·협력하여, 본당 관할 지역 내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발굴하고 영적·물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본당 사회복지사목 매뉴얼’을 제작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3. 교구(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본당이 관할 지역 내에서 본당 상황 및 고유성에 맞게 사회복지사목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산하시설과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자 합니다.

###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1. 생명의 가치 회복을 위한 교육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는 인류 전체, 지구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명의 가치관, 공생의 가치관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각 본당에서 미사 강론이나 특강 등 다양한 교육기회를 통해 생명의 가치를 회복하는 일은 신자들이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길을 안내할 것입니다.



2. 본당 내에 평신도단체 ‘우리농 생활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십시오.  
본당 사목회 사회사목분과 산하에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우리농 생활공동체’를 구성하여 우리농운동이 복음의 기쁨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신앙실천운동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십시오. ‘우리농 생활공동체’는 생태사도직 단체로서 생명가치를 널리 알리고 도농교류, 생명농산물 나눔 등의 활동을 통하여 농촌과의 연대협력의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3. 신자들이 우리농회원이 되어 도시와 농촌이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농촌살리기운동은 매일 마주하는 밥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신자들은 우리농 회원가입을 통하여 생명의 밥상을 차릴 수 있습니다. 생명의 밥상차림은 농민들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나아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4. 본당에 생명농산물 정례 직거래 장터를 마련하여 주십시오.  
생명농업실천 농민들의 생명농산물을 도시 본당의 신자들과 나누는 장은 농민들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요 세상에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선교의 장이 될 것입니다.

### <이주사목위원회>

사목교서에서 교구장님께서서는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는 교구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는 말씀에 따라 우리가 체험한 복음의 기쁨을 우리의 가정과 본당 공동체를 넘어 세상 곳곳에, 특별히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증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2020년 주님부활대축일 메시지를 통하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 가운데 하나가 ‘이주민’이라고 말씀하시며, 이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돕는 것이 각 나라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처럼 교구장님과 교

항님께서는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는 교구 공동체가 되기 위해 믿음·희망·사랑의 향주 삼덕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인 사회적 약자들, 특별히 이주민들에 대한 사랑의 실천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본당에서는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주민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오해 그리고 차별의 마음을 바꾸어, 환대와 사랑의 실천으로 외국인들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들이 우리 신앙과 교회 활동의 힘의 원천인 미사에 편히 참여할 수 있도록 환대하여 주시고, 이주민의 특성상 먼저 교회를 찾기 힘든 어려움을 배려하시어 구역, 반에서 먼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교회의 작은 공간일지라도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파견된 사람, 복음의 선포자

“주님께서는 우리가 체험한 복음의 기쁨을 우리의 가정과 본당 공동체를 넘어 세상 곳곳에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중략) 우리 모두는 복음이 가져다주는 큰 기쁨과 행복을 새로운 방식으로 온 세상에 증거해야 합니다.”(2021년 사목교서 중에서)

사목교서에서 교회는 코로나19로 신앙에도 삶에서도 커다란 위기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파견되어 현재에 맞는 새로운 방식의 복음선포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마르 6,7-9)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복음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지난 기간 코로나19로 배운 것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는 더 이상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기관과 유기적으로 긴밀히 연대하는 통합적 사목적 해안을 가져야만 한다는 경험을 하였다. 더 이상은 준비가 되었을 때(빵, 전대의 돈, 신발, 옷이 준비되어야만 떠나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들을 먼저 찾아 나서고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맞추어 즉각적으로 투신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함께 연대하여(둘씩 짝지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예상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하며 각 본당 공동체는 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나눔 실천에 동참합시다.

## 1. 명동밥집

현재 더욱 악화만 되어가는 코로나19의 상황과 이 상황이 지나간다고 해도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질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교회는 노숙자를 비롯해 사회의 그늘진 곳에 있는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처럼 이러한 긴박한 시기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인격적인 만남 안에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드실 수 있는 공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명동밥집은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회의 각 유관 기관들과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들이 파견된 사람, 복음의 선포자로서 각자의 고유한 역할을 가지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중심으로 사랑과 나눔, 봉사를 실천하는 자리입니다. 더 나아가 노숙자들의 식사와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한 궁극적으로 그들의 자활을 도울 것입니다. 이들을 위한 사랑과 나눔 실천, 봉사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2. 국제협력센터

각 본당은 믿음, 희망, 사랑의 공동체로서 ‘공동의 집, 지구 공동체’가 직면한 빈곤,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구촌의 가장 가난한 이웃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가난하고 고통받는 지구촌 곳곳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일하고 있는 본부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위해 헌미헌금(5월, 9월) 운동에 적극 동참해주십시오. 동시에 본부가 시행하고 있는 지구시민교육 및 캠페인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구촌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고, 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 양식의 변화를 각 본당에서 실천해 주십시오.

### 3. 생명운동센터

혈액, 장기 등은 인공적인 대체제가 없으며, 생명나눔은 장기부전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은 생명나눔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현저하게 감소시켜 생명나눔이 필요한 이들을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본당에서는 본당 교우들이 복음의 선포자로서 이들의 고통을 돌볼 수 있도록 본당에서 헌혈, 장기기증, 조혈모세포기증 캠페인을 실시하여 주십시오.

### 4. 자살예방센터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앞으로 마음돌봄이 필요한 많은 신자들이 증가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청년, 여성과 같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많은 이들이 극단적인 죽음을 선택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집중적인 돌봄 활동이 필요합니다. 본당에서는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다양한 소공동체 모임을 집중하여 확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고립감을 줄이고 주님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또한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에서는 소공동체 모임 활성화에 필요한 온라인 소통 매뉴얼,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 다양한 생명 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자살예방 캠페인, 자살유가족을 위한 미사 및 모임을 실시하고 있으니 본당에서의 필요한 지원이 있으실 경우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5. 운영지원센터

본부는 생애주기별기부, 유산기부, 고액기부, 나눔가게·나눔기업 등의 다양한 기부방법을 통하여 나눔실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당교우들이 생활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눔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 할 수 있도록 권고해주시고 본부가 제공하는 견진교리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우리 삶 속에서의 교회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살아 갈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 뉴미디어(유튜브, SNS 등)를 통해 본부가 우리 사회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믿음, 사랑,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므로, 본당에서도 신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동참 하실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목위원회>

1. 교구 공동체가 당면한 생태계 위기 및 기후 위기에 관해 교구 차원에서 대응하고 실천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구 온난화 극복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교구 공동체의 구체적인 실천이 시급합니다.
2. 교구 공동체의 모든 활동 안에서 기후 위기와의 관계를 꾸준히 고민하며,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교구 내 본당, 부서, 단체들은 에너지(예: 전기, 물, 종이 등)를 얼마나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매월 살피고 그 소비를 줄이며, 매월 그 상황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찾도록 합니다.
3. 교구 공동체는 기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활동과 행사를 계획하고 마칠 때까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프로그램 진행 시 자가용 승용차의 이용률을 줄이는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노력을 각각의 회의에서 함께 논의하고 실천해 나갑니다. 또한,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금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중 식사 시간에 육식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교구 공동체가 사용하는 건물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설치합니다. 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환경사목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후 위기 극복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가까운 공동체, 혹은 교구 내 다른 부서와 연대합니다.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자재가 있다면 서로 정보를 공유합니다.
5. 회칙 「찬미받으소서」에 수록된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를 부서 회의 등에서 자주 바칩니다. 특히, 9월 1일부터 10월 4일의 창조 시기를 보내면서,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부서가 기획하는 프로그램에 포함하고, 필요하다면 별도의 행사를 마련합니다.

6. 교구 공동체의 모든 이가 생태계 문제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과 현재의 기후 위기 상황에 관한 교육을 자주, 가능하다면 매년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또한, 신자, 수도자, 성직자 모두가 창조질서보전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필요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합시다.
7. 각자의 자리에서, 혹은 연대하여 정부와 기업에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과 법안 마련, 그리고 구체적인 시행을 촉구함으로써, 가난한 이들과 우리 공동의 집 지구에 고통을 주는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 생명위원회

생명위원회에서는 2021년 우리 교구의 사목방침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는 교구 공동체’에 따라 사목교서 세부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본당 생명분과’는 죽음의 문화가 가득한 이 세상에 생명의 문화를 건설하기 위해 회칙 「생명의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따라서 본당 생명분과위원들은 ‘온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생명의 봉사자’들이며, 사랑의 봉사를 통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당 내에서 이들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직 생명분과가 설치되지 않은 본당에서는 반드시 생명분과, 가정생명분과, 환경생명분과를 설치하거나, ‘생명수호담당자’를 임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당 생명분과의 생명수호활동은 제 분과 및 단체들과 「함께 하는 사목활동」입니다. 각 본당에서는 제 분과 및 단체들도 본당 생명분과와 함께 생명수호활동에 동참하도록 장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당 생명분과의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생명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전하고 실천하는 교육활동」입니다. 각 본당에서는 교구에서 시행하는 생명교육과 활동에 본당 신자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내에

서도 교우들을 위한 생명교육을 기회있을 때마다 시행해주시기 바라며, 본당 신부님들께서는 여러 기회의 강론을 통해 생명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교우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본당 생명분과위원들을 위한 양성교육’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당 내 생명교육 : 사순, 대림시기 특강, 견진성사준비교육, 생명주일 강론, 생명특강(노인대학, 자모회 등)

- 본당 생명분과위원 교육

  - : 정기연수(연 1회 의무참석) 및 생명 관련 세미나 참석,

  - 꿈꾸는 생명교실(1단계 : 회칙 「생명의 복음」연구,

  - 2단계 : 「인간생명」 및 「가정공동체」 연구)

- 슬기로운 부부생활을 위한 자연주기법(NFP) 기초과정(10주) 및 심화과정 수강

- 모든 신자들을 위한 「참 생명학교」 기초과정(8주) 및 심화과정(10주) 수강

- 생명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읽기 및 필사 운동

- 생명 관련 cpbc가톨릭평화방송 TV프로그램 시청, 라디오 청취하기

3. 본당 생명분과는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돌봄으로서 복음의 기쁨을 체험하는 찾아가는 사목활동」입니다. 따라서 각 본당에서는 생명의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위해 ‘생명을 위한 기도봉헌 운동’을 각 가정과 본당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이와 함께 생명수호를 위한 미사와 전례 그리고 생명존중행사 등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례 : 본당 생명미사 봉헌, 생명을 위한 밤 기도, 임신부 및 태아 축복미사, 난임부부를 위한 축복식

- 가정과 본당에서의 기도운동 : ‘생명을 잉태한 가정과 병자들을 위한 기도봉헌 운동’ (과달루페 성모님과 함께하는 묵주기도 운동)

- 행사 : 생명대행진, 생명수호체험수기 공모전 참여

- 돌봄 :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방문 혹은 매일 안부전화, 병자방문


- 나눔 : 생명나눔(제대혈 기증, 장기기증, 시신기증, 조혈모세포 기금, 헌혈 등)에 참여하기



4. 생명위원회에서는 성 바오로 6세 교황의 회칙 「인간생명」의 가르침에 따라 ‘자연주기법’을 핵심프로그램으로 지정하고 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행복한 가정운동’이라는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운동’에서 주관하는 자연주기법(NFP) 교육은 가정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시대의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이므로 가임기 교우 부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히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격적 성교육이며 자연주기법(NFP)을 기초로 한 성·생명·사랑교육인 ‘틴스타’ 프로그램에도 본당의 청소년·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5. 각 본당에서는 교우들이 생명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임종의 위험에 처해있거나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교우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본당 가정간호와 호스피스 돌봄’에 대해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난임의 고통 속에 있는 부부들을 특별히 돌보아 주시고 가톨릭적 난임극복 프로그램인 ‘나프로 임신법’을 교우들과 난임 부부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을 지켜낸 미혼부모들에게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모 후원을 위한 기금 모금과 수혜자 추천에도 필요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6. 그밖에도 “곤경이나 부적응, 병이나 거부등의 여건들 때문에 생명이 도전을 받는 경우를 위한 다른 프로그램들”, 예를 들어 “약물 중독 치료를 위한 단체들, 미성년자들과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거주 공동체들, 에이즈 환자들을 위한 대한 에이즈 협회”(『생명의 복음』, 88항) 등에 사랑의 봉사로 참여하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안 내 >

- 사목지침서의 「사목교서 및 사목교서에 따른 지침」은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http://aos.catholic.or.kr/>) → ‘간행물’ → ‘**사목지침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목 지침에 따른 「부서별 사목 목표 및 계획」은 **부서별 사목 목표 및 계획**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해당 게시판으로 이동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